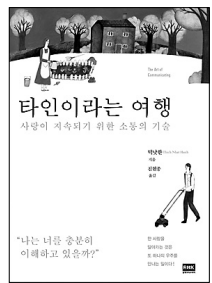


삶의 가치는 생각·말·행동의 질에 있어



타인이라는 여행
틱낫한 지음
진현중 옮김
RHK퍼냄
1만3천원

상대를 아주 잘 알고, 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눈빛만 봐도 알지"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한번쯤 되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다.

이 책은 타인과의 인간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은 관계를 매뉴얼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진정한 소통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책이다.

저자인 틱낫한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영성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90명생 가까운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성자가 되어버린 투사'에 가깝다. 정치적 탄압으로 조국 배트남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한 삶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이번 책에서는 개인의 마음챙김서 한걸음 나아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그의 저서들이 명상과 마음 다스리는 법에 초점을 뒀다면 이 책은 타인, 더 나아가 사회와의 소통에 좀 더 비중을 뒀다. 어떻게 보면 '명화 액티비스트(activist)'로서의 그를 가장 잘 드러낸 책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 소통은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좋은 음식과 같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로운 대화는 독소를 섭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나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불통의 상황에 노출돼 있다.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서 누군가가 내뿜은 욕설, 직장에 출근해 인사 했는데 대꾸조차 없는 상사, 그리고 개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뜻밖의 재앙들과 이를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다양한 매체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은 나와 타인, 사회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자각한 재난이었다.

저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조상, 사회, 국가의 고통이 함께 들어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개인의 마음챙김서 더 나아가 가족, 친구, 직장, 국제적 갈등 속에서 올바르게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틱낫한 스님에 따라붙는 수식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서 '이 시대의 뛰어난 소통자'로 불리는 이유는 특유의 전달력에 있다. 우선 초등학교생이면 이해할 정도로 메시지가 쉽고, 간결하다.

이 책에서도 그런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불통의 비밀'을 들려주어내는 저자의 예리한 혜안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은 프랑스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상흔과

칠십여 년을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에 대한 치열한 통찰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가르침에는 네 가지 규범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세상의 언어로 말한다. 세속적 방식으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사물을 보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미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만 소통할 수밖에 없다. 둘째, 듣는 이의 마음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

진정한 소통의 기술 노하우 전해주 "진실을 말하되, 요령 있게 말하라" 소통은 타인과 유대관계 강화시켜

람의 능력에 맞추어 말해야 한다. 셋째,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한다. 세속의 언어를 쓰되 닳치는 대로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규범은 사물에 대한 심오한 견해, 즉 절대적 진리를 반영한다. 이는 추상적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김숙이 살피거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논의할 스승이나 친구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규범들은 공개석상서 전문용어를 쓰는 교수나 전문가들, 민감한 사

회 이슈를 다루는 매체 관계자들이라면 한 번쯤 새겨들 만한 이야기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여섯 가지 주문도 소개한다. 어떤 미사여구도 없지만 그렇기에 담백하게 더 와닿는 말이다.

첫 번째 말인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다. 두 번째 "나는 당신이 함께 있음을 알기에 행복해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려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 혹은 중요한 순간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세 번째 말인 "나는 당신이 괴롭다는 것을 알기에 여기 있어요"는 상대방이 괴로워함을 인지했을 때, 그 괴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 네 번째 "괴로우니 제발 도와주세요"는 괴로움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을 때 힘들겠지만 사용하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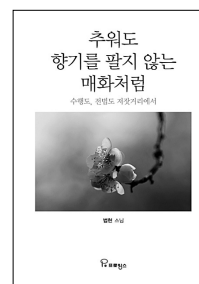
특히 네 번째 말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에게는 힘든 말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주문 "지금이야말로 행복한 순간입니다"는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불러오는 말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몹시 운 좋고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문인 "일리 있는 말입니다"는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겸손함과 정직함을 지켜주는 말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불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설법을 듣는다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법현 지음 | 프로망스 퍼냄 | 1만5천원



2005년, 50여년 된 전통시장 건물 2층, 도량 자리로는 쉽게 생각되지 않는 저잣거리에서 '열린선원'이란 전법도량을 열고 불법을 전하고 있는 법현 스님이 그 동안 치열한 전법을 펴며 남겼던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세상이 모든 것은 덧없으니 그것은 곧 나고 죽는 이치일세" 사람 잡아먹는 귀신 나찰이 계승을 물었다. 나찰의 계승을 들은 청년은 다음 구절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목숨을 건다. "나고 죽음이 없어지면 고요하고 쉬어 즐거움이 되리" 청년은 나머지 계승을 듣고 환희심이 나서 다음 사람을 위해 바위 위에 계승을 새기고 약속대로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던졌다. 그러자 나찰이 청년을 받아 모셨다. 나찰은 제석적이었고, 설산종자라고 불리는 청년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책은 "이렇게 부처님은 아침에 도를 들고 저녁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얻으면 금방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철저한 구도 정신으로 수행을 하셨다."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지 묻는다. 책은 부처님의 이야기, 한 시대의 스승이었던 선지식들의 이야기, 저자 스스로 겪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 법을 전하고 있다.

책은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섯 개의 큰 제목으로 묶었다. 첫 번째 묶음에서는 출가수행자의 향기와 자세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뤘다. 두 번째 묶음에서는 수행에 관련된 글들을 주로 묶었다. 세 번째 묶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자기 계발서처럼 준비하는 글들을 묶었다. 네 번째 묶음에서는 사회적 소통에 대해 다뤘고, 다섯 번째 묶음에서는 불교와 사회적 메시지가 만나는 글들을 모았다.

저자인 법현 스님은 주로 대중종 총무원, 종단협의회 등에서 오랜 세월 동안 행정의 소임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며 수행과 전법에 생각을 모아왔다. 스님이 저잣거리에서 도량을 연 것은 저잣거리에서 하루하루 근근덕신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깊은 산문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견성성불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외국인 스님들에게 시행하고, 남부불교 교류 및 한중일 불교 교류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으며, '열린 절'이라는 카



법현 스님

페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 포교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교문화포교의 일환으로 <불교차례의식 정립에 관한 고찰>, <불교화환법회고>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을 뿐 아니라 현장에 직접 적용한 행사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스님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공부하고 유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저잣거리 포교'라는 새로운 포교의 장으로 재래시장 건물에 '열린선원'이라는 포교원을 개원해서 '열린 불교아카데미 3개월 기초 1,2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불교의 교육방법론에 입각한 포교 방편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중견 전문가를 모아 '선교 방편연구소'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잣거리에 '열린선원' 열고 전법 각자의 의미 바라보게 하는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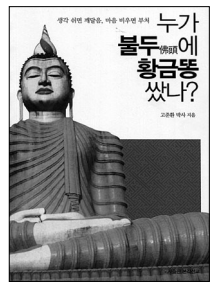
스님은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접해서 깨달음을 얻어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포교 및 마음공부 하는 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기구와 문화포교의 전담인 수원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꿈도 가지고 있다. 이번 책은 스님이 그동안 길 위에서 펼친 전법 실천의 한 가지이며, 더 먼 길을 가기 위한 중요한 점검의 기록이다.

2600여년 전,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시고 나서 그 동안 법다운 법 없이 살았던 중생들은 각자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됐고,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얻게 되었다. 축복이었다. 부처님 열반 이후 그 법의 소중함을 남다르게 생각한 이들이 있어 그 법은 잊히지 않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후대를 위한 여러 형태의 전법불사는 계속되고 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이 곁에 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해의 바다에 던져진 중생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법현 스님의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역시 한 시대를 바라보며 써내려간 법문이다. 점점 더 불성의 의미가 소중해지는 시대다. 각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잊었던 불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설법의 시간이다. 박재완 기자

불성(佛性) 가진 당신에게 던지는 화두

누가 불도에 황금똥 썼나?

고준환 지음 | 본각선교 퍼냄 | 1만8천원



불두착분(佛頭着糞)이란 말이 <경덕전등록>에 전해진다. 최상공이라는 사람이 한 절에 갔다가 참새가 불상 머리 위에 똥싸는 것을 보고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참새에게 불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놈들은 부처님 머리에 똥을 싸니까?" "그럼 저놈들이 왜 독수리 머리에는 똥을 싸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늘 새똥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오신다. 그걸 알아본 참새에게 왜 불성이 없겠는가. 그후 중국의 구양수가 책 신오대사를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서문을 지려 하자, 왕안석은 "부처님 머리 위에 어찌 똥을 바르겠는가?" 하고 비웃었다. 그 뒤 '불두착분'은 '남의 책에 부족한 서문을 붙인다'는 뜻도 생겼다.

저자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본각선교원 원장)는 서울대 법대 1년 시절인 1961년, 부처님오신날 서울법대 법불회법회서 청담스님의 마음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을 접했다. 그로부터 '나'와 우주의 진리에 관한 관심은 늘 저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후 '명심견성 성불제중(明心見性 成佛濟衆)'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탄허·설총·혜암 스님을 비롯해 김동화 교수 등 수많은 선지식들에게 배웠다. 그 덕분에 저자는 선정을 비롯해 신선도·초월명상·아바타코스 등 다양한 수행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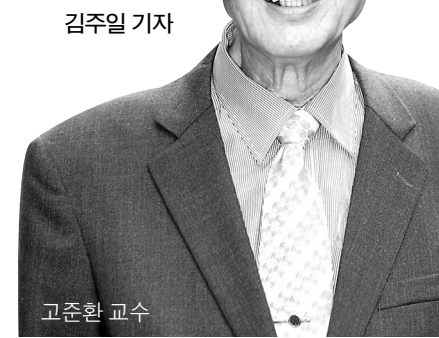
도하게 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주는 본각이고, 불이 중도며, 적멸이고 부처니, 중생이 본각으로 살아가려면, 신해행증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각은 중생을 떠난 적이 없고, 새로 깨달은 시기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닌 본각이요, 구경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생이 선교일치(禪教一致)로 크게 깨달아 중생불(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 성불하는 일이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본각론이다. 이에 저자는 반 백년이 넘는 불교공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로 이 책을 현대에 맞게 저술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의 제목인 '누가 불도에 황금똥 썼나'는 독자에게 드리는 저자의 화두인 것이다.

저자는 "제자로서 탄허 스님 열반 30주년을 맞아 살아생전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를 쓰시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반에 드신 스승의 뜻을 기리고자 출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저자는 "이 책이 개인종사들에게겐 쓸데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는 한 바가지 감로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고준환 교수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산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당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반산,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산, 기반산 완성 과정과 만능, 다양한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산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반산, 심혈관까지 활용될 수 있는 용한자 기반산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